2. 박동형(朴東蘅)

1749年(영조 25)~1808年(순조 8) 조선 후기 문신.

본관은 죽산(竹山), 자는 태언(台彦), 호는 불변당(不變堂)이다. 아버지는 박원유(朴元㽦)이며 전라도 호곡리(好谷里)에서 태어났다. 아들은 박진호(朴震祜)이고 손자는 순조(純祖) 25년(1825) 을유(乙酉) 식년시(式年試) 병과(丙科)에 합격한 박규서(朴奎瑞)이다. 김이안(金履安)의 문인이다.

남원 죽산박씨 종가(南原 竹山朴氏 宗家), 즉 전라북도 남원시 수지면 호곡리에 있는 죽산박씨의 종가 가옥에 가면 효자(孝子) 박동형(朴東蘅) 정려(旌閭)라는 편액이 걸려 있다.

저서에는『불변당유고』2권이 있다.

『불변당유고(不變堂遺稿)』는 조선 후기의 학자인 박동형의 시문집이다. 2권 1책으로 석인본이다. 1966년 6세손 박환준(朴煥俊) 등이 편집하여 간행하였다. 권두에 김윤동(金潤東)의 서문과 권말에 박중식(朴仲植)의 발문이 있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권1에는 시(詩) 181수, 문목(問目) 6편, 서(書) 16편, 제문 10편, 묘표 1편, 찬(贊) 1편, 서(序) 6편, 잡저 1편이 수록되어 있고, 권2에는 부록으로 언행록 1편, 문(文) 4편, 가장(家狀) 1편, 만(輓) 24수, 제문・행장・묘표 각 1편 등이 수록되어 있다.

시는 차운(次韻) 또는 화답류(和答類)가 많으며, 율시에는 성리학의 이학적 사변을 읊은 것도 있다. 서(書)에는 예학과 경학(經學)에 관한 훈고적인 문답이 많다. 대개 친구 사이에 왕복한 것으로, 그 중『가례』에 관한 문답이 39개 항목,『대학』에 관한 문목이 29개 항목,『논어』에 관한 문목이 21개 항목,『맹자』에 관한 문목이 7개 항목 등으로 되어 있다.

잡저에는 자손들을 경계한 것으로, 선비된 자는 뜻을 세우기에 따라 성공여부가 달려 있다는 내용으로 입지(立志)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참고문헌]

『불변당유고』,『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